

장성군, 전남체전 대비 체육시설 정비

위라벨돔 경기장 '하드코트' 설치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잔디 교체
내년 초까지 9곳 정비 마무리

장성군이 개정 이래 처음으로 유치한 '2025 전남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대적인 체육시설 정비에 나서고 있다.
장성군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총 26억원을 투입해 체육시설 9곳을 정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위라벨돔경기장,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장성실내수영장, 공도장 백학정, 삼계테니스장, 장성호 조정경기장, 생활체육공원 풋살경기장, 스타디움 보조경기장, 홍길동체육관이다.

현재 위라벨돔구장은 하드코트 설치 작업을 마쳤고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와 관리실 설치는 마무리 단계다. 내년 초까지 정비를 모

두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 체육시설도 일부 정비한다. 장성군은 전남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한 7000여만원을 들여 장성중학교 조명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최근 하드코트 교체로 새 단장을 마친 위라벨돔구장이 스포츠 동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나머지 체육시설도 차질 없이 정비해 양대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군민 체육시설 이용 편의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공공숲가꾸기 사업 인력들이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 일부를 뿔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담양군 폐현수막으로 만든 '농작물 화분' 700개 원예 농가 배부

미싱동아리 '쏘잉스쿨' 협력 제작

담양군이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농작물 화분을 원예 농가에 배부해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미싱동아리 '쏘잉스쿨'과 협력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제작한 '농작물 화분' 700개를 지난달 원예 농가에 배부했다.

폐현수막 화분은 부직포 화분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 올해 초 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9320개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개선할 사항을 조사해 동아리 회원들과 개선된 폐현수막 농작물 화분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주민의 손을 거쳐 쓰임이 다했던 폐현수막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농자재로 다시 태어나 탄소중립 실천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폐현수막의 다양한 재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담양군 한 농가의 블루베리 하우스에서 낚은 부직포 화분을 폐현수막 농작물 화분으로 옮겨 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함평군,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뿔감' 전달

숲 가꾸기 부산물 24가구 25t 지원

함평군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지역 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소외계층 24가구에 뿔감 25t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함평군은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사랑의 뿔감 나누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공공숲가꾸기 인력을 활용해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 일부를 뿔감으로 준비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지역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함평군의 뿔감 지원은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산림 내 가연성 물질을 사전 제거해 산불 등 산림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주민에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과 산불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나뉘드린 뿔감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원(오른쪽) 강진군수와 허태곤 ㈜두보식품 대표이사가 지난 6일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나주시,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140% 이하로...연 36만원

나주시가 치매 치료비, 약제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나주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건을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로 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치매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40% 이하 60세 이상 주민이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통

장, 약 처방전, 치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계산서 등 서류를 지참해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자격심사 등을 거쳐 치료비 및 약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10월 말 기준 총 4395건, 2억8000만원의 치매 치료·약제비용을 지원했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관련 문의는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 노인 일자리 참여자 83% "생활비 도움"

4639명 만족도 조사

화순군이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비·용돈 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3%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건강, 사회활동 참여 등이 뒤를 이었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사업참여자가 4639명, 수요처 92개소, 서비스 대상자

25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만족도 조사를 1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의 99%, 수요처의 10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참여 효과로는 생활비와 용돈 마련 등 경제적인 도움이 83%로 가장 높았고 신체 건강 개선 13%, 주변 사람과의 친교 유지 및 사회활동 참여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기관 업

무에 실제적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0%를 차지했으며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문제 해결 동참이 27%로 뒤를 이었다.

화순군은 올해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82억원의 예산을 투입,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5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선화 화순군 가정활력과정장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더 나은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군, 서리태 계약재배... "농가 30억 소득"

두보식품과 520t 재배 협약

강진군이 서리태의 안정적인 생산과 지속 가능한 농업인 소득 확대를 위해 본격 나섰다.

강진군은 지난 6일 서울시 양재동에 있는 ㈜두보식품 본사에서 강진원 강진군수, 허태곤 ㈜두보식품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협약으로 고품질 서리태(청자5호) 생산단지(150ha)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원료곡

생산으로 소득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두보식품은 종자 공급은 물론 강진산 서리태를 이용한 제품 개발 및 안정적인 원료곡 구매 등을 지원키로 했다.

군은 2025년 '청자5호' 계약재배를 통해 약 520t, 30억원의 조수익을 올릴 계획이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청자5호'가 가공업계에서 인기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30여 농가, 30ha를 대상으로 시범 재배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